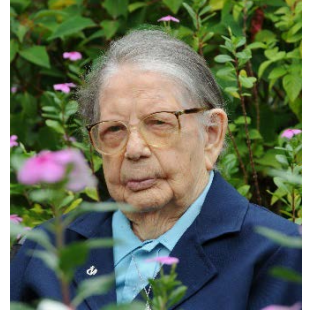


부고

마리아 엘렉티스 MARIA ELECTIS 수녀

ND 2698



루치아모르스 Luzia MOHRS

브라질, 카노아스, 아파레시다성모관구

출생: 1904년 3월 24일 독일, 포먼-모젤
서원: 1928년 4월 16일 독일, 플하우젠
사망: 2017년 10월 16일 카노아스, 레칸토아파레시다
매장: 2017년 10월 17일 카노아스, 수녀원묘지

“지극히높으신분이시여, 당신이름에찬미노래부름이좋기도합니다.”(시편 92편 1절)

2017년 10월 16일 오후 10시,
백세장수를 누리던 사랑하는 우리 마리아 엘렉티스 수녀가 조용히 잠들었다.
수녀의 긴 생애는 시편 저자와 함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지극히높으신분이시여,
당신이름에찬미노래부름이좋기도합니다.” 113세
6개월이라는 나이에 접어들었던 수녀는 노틀담 수녀로서는 최고령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관구 성당에서 축성 생활 85년의 해바라기 경축년을 맞이했다.

루치아는 1904년, 독일 포먼모젤에서 태어났다.

요셉모르스와 마리아안나링사이에서 태어난 여섯 번째 딸이었다. 수녀는 1939년
2월에 스물세 번째 독일 선교사 그룹과 함께 브라질에 왔다. 사도직은 병자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독일에서 10년간 종사했고, 1939년 7월부터

1988년까지는 브라질 펠로타스의 올리베레이테 신경정신병원에서 헌신했다. 수녀의 직업 윤리,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두드러졌다. 수녀는 동료 수녀들, 의사들, 직원들,
환자들의 존경과 존중을 샀다. 자신의 일에 관해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과 환자들을 위해 일했던
49년 동안 한번도 무시당했던 적이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

1988년, 수녀는 레칸토아파레시다로 와서 간단한 공동체 소임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음식 준비를 돕던 노인 수녀 그룹의 일부로서, 백세를 넘긴 후에도 기쁘게 감사와 야채 다듬기를 돕곤 했다.
수녀는 기도, 직업적 치료 요법 활동, 완벽하게 해내던 뜨개질 등,
고령의 나이에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수녀는 공동체 생활을 사랑했으며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다. 공동체 기도,
특히 성체 조배와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수녀는 친절하고 기쁨에 차 있었고,
현존과 활동에 있어 단순했지만 외양에 신경을 써서 항상 잘 차려 입고 굵은 신발을 착용했다.

수녀는 평생 동료 수녀들, 특별히 같은 사도직에서 28년간 동료였고

1988년에 세상을 떠난 마리아 지글린데 수녀와의 깊은 우정을 키웠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독일의 가족들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다.

10월 초에는 독일에서 고조카 손주들이 방문했는데 수녀를 만날 수 있어 몹시 반가워 했다.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다시 수녀를 방문할 계획이었기에 놀라워 하며 무척이나 슬퍼 했다.

우리는 마지막 독일 선교사였던 사랑하는 마리아 엘렉티스 수녀의 관대한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린
다. 수녀회는 브라질에 왔던 많은 마음 넓은 독일 선교사들 덕분에 이 땅에서 번성하고 빨리 발전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노틀담의 카리스마와 정신을 살고 선포하는 법을 배웠다.

이 수녀들에게서 물려받은 카리스마적인 유산을 교회 안에서 생생히 보전하도록 하자.